

제 5161호 2000년 11월 25일 창간

homae.co.kr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음력 4월 10일)



장미 가득한 정원

9일 오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교정에 조성된 '장미정원'에 꽃이 만개해 봄나들이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뉴스

## 민주 광주지방의원 70% '물갈이'

여성 43% · 청년 27% …기초단체장 5명 중 2명 교체

최연소 광역의원 후보 만 27세 · 기초의원 만 28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후보자 선출을 마무리한 가운데 지방의원 70%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여성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광주 지방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단체장 후보 5명, 광역의원 후보 22명(비례 2명), 기초의원 후보 69명(비례 9명)을 확정지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기초단체장 후보는 5명 중 2명이 교체됐다.

광역의원은 22명 중 16명이 바뀌면서 73%가 교체됐고, 기초의원 역시 69명 중 48명이 바뀌면서 교체율이 70%에 달한다.

여성 · 청년 후보 공천율은 지난 7회 지방선거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는 광산구 비례대표 만 28세 강한솔 후보다. 연령 대별로는 ▲20대 3명(광역 1, 기초 2), ▲30대 8명(광역 4, 기초 4), ▲40대 27명(기초단체장 1, 광역 7, 기초 19), ▲50대 43명(기초단체장 3, 광역 7, 기초 33), ▲60대 15명(기초단체장 1, 광역 의원 3, 기초의원 11)으로 구성됐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전국 시 · 도당 중 유일하게 현직 국회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며 공천 혁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청년 · 여성 등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을 받아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지방선거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AI서관학교 참여 열기 2면

15개 부처 차관 인선 3면

경제 하방 위험 확대 4면

## 文대통령 "과분한 성원 감사…갈등 메워 국민통합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다음 정부에서도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기대한다"며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퇴임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누구도 부정 못할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이라며 차기 정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온 시기였다"며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어주셨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고 밝혔다.

촛불집회 당시를 떠올린 문 대통

령은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친탄을 보냈고,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켜 냈다"며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고 5년을 돌아봤다.

이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 만은 아니었다"며 "한편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이었다고 토로했다.

/뉴스

青 본관서 퇴임연설… "대한민국 성공 역사 잊길"



령은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친탄을 보냈고,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멎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염원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자 동력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를 향해 "평화는 우리에게 생존의 조건이고, 번영의 조건"이라며 "남북 간에 대화·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 광주 · 전남서 축산식품 국제공인시험기관 첫 탄생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동물용의약품 임류물질 시험 인증 획득

전남도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광주 · 전남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임류물질 시험 분야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ISO 17025)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정은 한국인정기구가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해 시험, 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인정획득을 위해 2020년부터 준비해 지난

해 컨설팅을 시작하고 ▲시험품질 문서 제정 ▲전문 인력 양성 ▲국제비교숙련도 평가(이탈리아 TEST VERITAS) 합격 등 시험 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어 지난해 10월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한국인정기구 평가반의 문서심사, 현장평가 등 1년 동안의 노력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하는 공인시험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가 막은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

/김용범 기자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